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민생 최대과제 공수처 출범 차질없게”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제
“포스트코로나 격변속 협치 절실
우리목표, 경제위기 극복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데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각종 정책의 실행이 다소 늦어진 데 따른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의 주제를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12·16 및 최근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된 데 따른 보완 대책 마련을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인 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에서 35조1000억 원 규모의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통과한 데 대해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농진청, 여름철 야생 독버섯 주의보

농촌진흥청은 6일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중독사고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7월에는 야생버섯의 발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중독사고 발생 빈도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는 약 1900여 종의 버섯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약 400여 종만 먹을 수 있고 대부분은 독버섯이거나 식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형태가 비슷한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외형적인 특징만으로 구

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외형만 보고 식용여부를 선별리 판단하고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야생버섯의 식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민간 속설도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색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 곤충이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먹을 수 있다’ 등의 속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한용수 기자

세계식량가격지수 4개월만에 반등

**농식품부, 전월비 2.4% 상승 93.2p
유지류·설탕 상승, 곡물·육류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4개월 연속 하락했던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난달 처음으로 반등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91.1포인트) 대비 2.4% 상승한 93.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식량가격지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으로 1월 102.5포인트에서 2월(99.4), 3월(95.1), 4월(92.4), 5월(91.1)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6월 처음 상승했다.

FAO 식량가격지수는 1990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 5개 품목군별로 매월 작성해 발표한다.

품목군별로 보면 유지류·설탕·유제품 가격은 상승했고, 곡물·육류 가격은 하락했다.

유지류는 전달(77.8포인트)보다 11.3% 상승한 86.6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지류 가격은 주로 팜유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이며 대두유·해바라기유·유채씨유 가격도 올랐다. 팜유 가격은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로 수입 수요가 회복되고, 이주민 노동력 부족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급등했다.

설탕은 전달(67.8포인트)보다 10.6% 상승한 75.0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 가격은 주로 국제 원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상승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브라질 설탕 공장이 설탕 대신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늘림에 따라 설탕 수출 가용량에 영향을 미쳤다.

유제품은 전달(94.4포인트)보다 4.0% 오른 98.2포인트다. 모든 유제품 가격은 상승했으나, 팬데믹 이전 가격에

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가격 상승은 특히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 수입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유럽의 계절적 요인으로 공급량이 감소하고 오세아니아의 공급 가용량이 제한적인 데 따른 것이다.

곡물은 0.6% 하락한 96.9에 머물렀다. 특히 곡물 중 쌀 가격은 일부 수출국의 교역 활동 둔화와 통화 흐름의 영향으로 연초 이후 처음으로 소폭 내려갔다. 육류는 중국과 중동에서의 높은 수요에도 주요 생산지역의 수출가용량이 늘면서 0.6% 하락한 95.2를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시장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돼지고기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FAO는 2020~2021 세계곡물 생산량은 27억8980만t으로 2019~2020년 대비 3.0%, 소비량은 27억3540만t으로 1.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9억2890만t으로 6.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용수 기자 hys@

‘비대면 수출상담회’ 6개국서 200억 상담성과 달성

**농식품부-aT, 3일간 총 184건
국내 39곳, 현지바이어 76곳 참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7월 1일부터 3일간 수출다변화 6개국의 신흥시장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수출시장다변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수출선도기업 39개사와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골·미얀마·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신흥시장 6개국의 현지바이어 76개사가 참가해 3일간 총 184건, 1700만달러(약 200억원)의 수출상담을 달성했다.

상담회는 해당국 수입바이어, 현지 유통업체, 신시장 현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안테나숍 운영자 등 aT가 신규시장개척을 위해 현지에 파견한 파일럿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발굴한 신뢰도 높은 바이어들이었다.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같은 신흥시장 국가에서는 한국산 라면과 함께 고추장, 된장 등 양념류를 활용한 셀프쿠킹



K푸드 신시장 개척도 이젠 온라인으로

/aT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된 제품들의 문의가 많았다. 또한 최근 면역력 강화에 대한 해외소비자들의 폭발적 관심과 수요증가로 인삼제품과 비타민 음료와 같은 건강기능성 테마제품의 문의도 예년에 비해부쩍 늘었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수출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규시장 진출전략을 온라인 기반으로 전면 개선하였다. 온라인 수출상담회 외에도 K-Food 온라인 전용관,

배달앱 연계 관측, 파워 인플루언서 연계 온라인 마케팅, SNS 스토리텔링 마케팅 등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수출업체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aT 신흥국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K-Food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상담회 참여율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온라인 상담회를 통한 참여기업과 바이어 간의 만남이 해당 품목의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견내량 해역 돌미역 채취 전통어업 방식

해수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해양수산부는 통영과 거제 사이의 견내량 해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인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을 제8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오랜 시간 걸쳐 형성된 고유의 유·무형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 해녀어업(2015), 보성 빨배어업(2015), 남해 죽방렴어업(2015), 신안 천일염업(2016), 완도 지주식 김 양식

어업(2017),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2018), 경남 하동·전남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2018) 등 7개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트릿대 채취어업은 ‘트릿대’라는 긴 장대로 물속의 바위에 붙은 미역을 잡아 올리는 전통적인 어업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돌미역은 썰물 때 바위에 붙은 미역을 손으로 따는 방식으로 채취하지만, 이 지역 어업인들은 미역 종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전통 어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견내량 양쪽에 자리 잡은 통영 연기마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 전경. /해수부

을과 거제 관리마를 주민들이 어선 50여 척을 동원하여 공동어업방식으로 돌미역을 채취하고 건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견내량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미역은 견내량의 거센 물살을 견디며 천연 암반에서 자라기 때문에 식감이 단단하고 깊은 맛이 난다. /한용수 기자